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이레의 축복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제9차 의료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게 되고, 특히 이번에 치과 의사인 Dr. Sim 집사를 탄자니아에 의료선교사로 파송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Dr. Sim 집사는 현지의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선교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면서 무료 치과진료를 하며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이번에 파송되는 선교팀 대원들과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최고를 누리기를 바란다.

- 1. 우리가 하는 선교는 많은 단체들이 하는 단순한 의료 봉사나 자선 차원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전달하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일성의 선교이다. 짧은 한 주간의 사역으로 무슨 대단한 결과가 있겠는가? 가서 무슨 행사 하나 하고 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선교를 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교회들조차도 가서 의료 봉사해주고, 집 지어주고, 학생들 영어 가르쳐주고 선교했다고 하기도 한다. 그것을 선교로 착각하고 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봉사다.
  -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15절)
    - 복음이 뭐가? 인간과 세상이 끝없는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데, 개인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의 노력이나 정치와 외교로도 풀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인생의 근본 저주를 해결하신 것이다. 원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영원히 계속될 미래 저주이다.
    - ① 원죄의 저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생이 저주에 빠지고(롬5:12), 그 저주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병도 저주다.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가문도 마찬가지다. 연구해보라. 가문 속에 저주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다.
    - ② 사단의 저주, 작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계속 실패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부가 검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흑암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덮힌 땅이다.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몰라서 흑암 세력에 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른다. 운명으로 알고 사는 것이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다. 가장 치안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얼마나 많은 마약이 만들어지는지 모른다. 곳곳마다 마리아 숭배 아니면 마녀 숭배다.
    - ③ 영원히 계속될 미래 저주, 내가 당한 고통과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나는 영원한 지옥 저주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저주를 끝내는 것이다. 내 후대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 2) 우리는 여기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길, 유일한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이다.
    - ①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의 피로 모든 죄, 저주, 운명에서 해방 받은 것이다(롬8:1-2). 해방 받은 정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복의 근원이다.
    - ②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이 부활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다(창3:15, 요일3:8) 이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더 이상 흑암에 묶여 살 인생이 아니다. 다시 문제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싸움하면 된다. 이미 승리한 자요, 승리할 자다. 흑암 역사한 만큼 증거를 주실 것이다.
    - ③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다. 원래 선지자(다른 말로 예언자)의 권세는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다(요14:6).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는 것이다. 세상이 어렵지 않은가? 그 분이 내 안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이다.
  - 3)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작은 사역과 헌신을 유일성의 역사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치유 사역과 랩던트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살리고 바꾸는 재창조를 이룰 것이다.
- 2.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면서 모든 대원들은 세가지를 붙잡고 가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붙잡으라. 본문 17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가지를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믿으면 반드시 증거(표적)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 1) 영적 권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17절 하) 우리는 영적 전성터로 가는 것이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영적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
      - ① 24시로 우리가 가는 길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움직이라 모든 성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어야 한다. 그 권세가 내 가정과 현장에서도 체험될 것이다. 이게 아니면 사단은 여러 가지로 방해 할 것이다(세관 문제, 사고, 질병, 갈등 등). 고전11:26에 바울도 겪었다.
      - ②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말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한 것이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권세다.
    - 2) 참된 치유의 역사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오리라”
      - 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내 손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다. 의사만이 아니다. 약으로만이 아니다.
      - ②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기만 해도 그들의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의 치유는 항상 이 세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사53:5, 사61:1)
    - 3) 미래의 축복이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다.
      - 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도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고전15:58) 그 분의 이름으로, 그 분의 명령을 따라 한 작은 일도 당신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누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마25:40)
      - ②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나라들의 미래이다. 우리가 누릴 기쁨이고 행복이다. 지구 상에 가장 작고 비참했던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복음화를 하는 나라로 만든 것이다

결론-여호와이레,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이지만 특히 그 분의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전도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이다. 이번 선교가 우리 모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한다.